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 3월 개강

평일을 이용해 성경을 공부하는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가 3월 29일(월)부터 개강한다.

6월 초까지 10주간 진행될 이번 학기 강좌는 야고보서반(월), 말라기반(화), 고린도전서반(화), 느헤미야반(목) 등이며 음악교실(목)도 연다.

서울성경대학은 신구약 전체를 강좌과목으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서울교회 성도뿐 아니라 타 교회 성도들도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음악

교실의 등록금은 과목당 오천원이며 첫 수강자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일만원이다.

문의 및 접수는 사무국.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 교과과정표(3월 - 6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야고보서	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3월 29일
	말라기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3월 30일
	고린도전서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3월 30일
	느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1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허희철 집사 · 안진희 선생	4월 1일

3월 행사계시판

일자	행사
2월 28일	3·1절 기념주일
3월 27일	육사 세례식 주관
28일	새가족환영회
29일	목회자세미나개강 (2시 YMCA 대강당)
29일	서울성경대학 개강 야고보서반(29일) 말라기반(30일) 고린도전서반(30일) 느헤미야반(4월 1일) 음악교실 (4월 1일)

삼일운동 80주년

이만열(전도사, 청년부 지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

다시 삼일절을 맞았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9곳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그 뒤 거의 1년여 동안 계속되었고, 한국독립운동의 막을 새롭게 연 민족적인 거사였다.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한 이 운동은 세계의 약소민족에도 영향을 미쳐 제1차 대전 후의 세계사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올해는 삼일운동 제 80주년을 맞는 해다. 국내외의 한민족은 이 날을 맞아 삼일운동이 남긴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50년 이상 분단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민족통일의 전망을 확실하게 갖지 못한 한민족은 삼일운동을 일으켰던 조상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꿇고 그 역사적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삼일운동은 첫째, 일제로부터 민족이 독립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이래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기뻐 복종한다고 선전하는 한편 한국인은 나라를 잃고서도 통

분하지 않는 의식없는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삼일운동은 일제의 이같은 선전이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된 것이었음을 증명하였다. 삼일운동은 강점이래 한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일제의 폭정을 물리치고 독립을 찾으려는 민족독립운동이었다.

둘째, 이 운동은 온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일제의 한국강점 후, 더러는 일제에 빌붙어서 민족을 배반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일제가 내린 작위를 받는가 하면, 더러는 경찰이나 헌병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기적 같았다. 심지어 경찰 앞잡이로 있던 조선인들마저 삼일운동 계획을 알았지만 이를 방해하지 않고 거사를 일으키도록 협조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에는 신앙과 종교, 남녀와 계급, 직업을 넘어서서 온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셋째, 이 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독립운동

이 새로운 단계로 뛰어오르게 되었다. 그 전에는 독립운동의 흐름이 이념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이 때부터 새롭게 편성되어 상해임시정부를 통하여 민주공화국을 이 땅에 설립하는 한편 광복군을 조직, 일제에 정부차원의 투쟁을 벌이게 되었고,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무장독립운동을 벌여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미주와 다른 여러 곳에서는 외교적인 차원의 독립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민족대표 33인중 16인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며, 지방의 독립운동 중 약 20% 이상을 기독교인들이 지도하였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1.5%정도였으나, 기독교인보다 10배가 넘는 신자를 확보했던 천도교는 독립운동에서는 기독교보다 열세였다.

이제 삼일운동 80주년을 맞아 당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처럼, 민족의 완전자주독립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삼일운동 때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사야 강해

앗수르의 멸망

이사야 17장 12 - 14절

본문은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괴롭히는 사람 혹은 민족의 운명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알리시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죄를 범하므로 때를 드시는데 이스라엘을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앗시리아에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앗시리아는 자신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앗시리아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다. 하나님은 결코 앗시리아로 하여금 역을함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앗시리아는 자기 분수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1. 멸망 받을 앗시리아의 형편

본문 12절을 보면 앗시리아는 많은 민족을 속국으로 삼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것을 감사히 여겼어야 하는데 앗시리아는 소동을 했다고 했습니다(12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하여 조용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은 성도의 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앗시리아는 자꾸 소동을 벌이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앗시리아의 세력은 마치 한 철의 메뚜기처럼 잠깐 뛰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시 후에 사라질 세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소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많은 민족’이란 큰 군대의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허풍을 떨고 놀라게 하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요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와 더불어 동맹을 맺어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겁이 나서 앗시리아에 청원을 하여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유다를 치기 전에 먼저 침략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얻은 앗시리아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성공

겨와 같이 흠어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3. 순간적인 멸망

바람같이 겨와 같이 흠어졌을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남은 것까지도 주워서 멸절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물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흠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몹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사 17:12 - 14)

이종운 목사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 때가 바로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앗시리아는 그만 분수를 잃어버렸습니다.

2. 앗수르 멸망의 원인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점령한 앗시리아는 유다까지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자기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했던 연합군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입니다. 앗시리아는 다만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움을 받은 것이었고 앗시리아의 왕은 이 진리를 알고 조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습니다. 앗시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약탈하여 부를 축적하려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파병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결국은 앗시리아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앗시리아의 다글랏 빌헤셀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파병했으며 결국 창과 칼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나 새벽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이들을 멸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시 35:3)같이, 폭풍 앞에 티끌 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흠으시면 바람같이

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녁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기 전’ 그들이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홀연히,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광풍으로 저들을 흠으시고 폭풍으로 두렵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천대하는 민족과 국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에 이용당했다가 망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미혹하는 말이 들릴 때에 악한 일에 동요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노의 무서운 때를 맞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만하여 분수를 넘지 말고 지금 나의 나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소리 대신 찬양이 울리도록

조남현(군 복무중, 대학부)

서울교회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두산 부대 66연대 3대대에서 군중병으로 근무하고있는 대학부 조남현입니다. 저는 군복음화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군중병의 주된 일은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시온교회는 전 군(육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온교회는 약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약 30-40명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매일 저녁 우리 신우회 성도들의 지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지친 모습이지만 온 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회가 끝나면 밤 근무를 서는 형제들을 위해 차 위문을 나갑니다. 영하 40도의 날씨에 근무를 서는 형제들에게 따뜻한 차를 들고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차(茶) 위문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도 자신들을 위해 차를 들고 나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큰 감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라고 합니다.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 그들은 모두 "예, 해 주세요" 라고 아주 흔쾌히 대답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는 그들 교인이 아닌 형제들도 기도가 끝나면 같이 "아멘" 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북한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모르는 그곳을 바라보며 총소리가 아닌 주님께 드리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이들이 사회로 돌아가기 전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아픈조'를 치료하신 주님

곽소은(고등부)

2월 21일, 드디어 기다리던 겨울수련회가 시작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 기다림은 친구들과 어울림이 좋아서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름대로 굳은 결심을 했던 것이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나를 고쳐 주소서"였다. 그래서 우리 조의 이름도 '아픈조'라고 했다. 고침을 받을 게 많을 터여서였다.

조 구성후 그룹 성경공부시간이 시작됐다. 웬지 지루할 것 같은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이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며 사명은 우리를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것이라 했다. 그 순간 궁금한 것이 있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소명을 받은 것일텐데 그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 내게 무슨 계획하심이 있을까? 수련회 기간에 생긴 속제였다.

한편 특별한 경험도 했다. 친구들의 간증시간이었다. 걸모습으로만 봤던 친구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인간적 사랑을 넘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느꼈다.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동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셨다.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이었지만 이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더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계획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있었던 저녁 집회시간은 큰 깨달음과 변화의 기회였다. 미워

했던 친구들을 찾아가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모두 아뢰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 모두 손을 들어 "나를 받으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 또 세상에만 빠져있는 불쌍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둘째 날에는 이종윤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지 알게 됐다.

겨울성경학교를 마치고

공사장 소음 위로 외친 기도제목

문형미(집사, 초등부 교사)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 아래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친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뒤를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 기간 중 가졌던 성경통독시간에 회장단 네 명 어린이의 낭독에 맞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이·삼서를 눈으로 따라 읽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이틀 동안 다양한 순서를 진행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 예배당 건축 현장에 갔었던 일이다. 교회버스와 봉고차에 나뉘어 장소를 이동하던 중, 봉고차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시동이 꺼져 운전하시는 장로님을 긴장케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시

다.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크리스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에는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3개월 후에 받아 볼 수 있게 하신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 속에 나의 결심 7가지를 썼다. 3개월 후에 내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까? 수련회 동안 받은 감동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을까?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사명을 다하길 원하실 것이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이 꺼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곤 했다. 오히려 차가 끼고 서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안전을 위해 쳐놓은 보호막 사이로 조심스레 들어가던 하나님의 귀여운 병아리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고 성을 돌 때에 이러 했을 것이다. 공사장을 한바퀴 돌고 나서 기도 카드를 한 손에 들고 부장 장로님의 선창에 따라 공사장의 소음에 기도 소리가 묻힐새라 큰 소리로 기도제목을 따라 목청을 높였던 주님의 어린 짝들!

겨울성경학교 기간 중에 배웠던 주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곧고 바르게 자라나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사랑스런 가지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지금 우리 부서에선 ① - 새가정부 멋진 주말을 위한 계획

김형택(집사, 새가정부 부간)

민생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양소라면 성도간의 교제는 그 맛과 향을 더하는 요소가 아닐까? 부부론 강론에 참여한 몇몇 신혼부부들의 진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노라면 자못 숙연한 기분이 든다. 이곳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삶을 영위하며 각자의 고뇌와 희망, 그리고 서로의 여망을 교환하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또 삶의 맛을 더하도록 취미와 능력을 계발하는 기회도 기대된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태교 특강도 듣고 육아법도 지도받자는 의견도 개진된다. 난초 탐사를 가자는 분도 있고 레크레이션 지도, 요리 실습, 부부 찬양대, 분재, 근교 농장 체험, 심지어 하얀 물거품이 솟구치는 급류를 내달리는 리프팅을 가자는 분도 있다.

새가정을 꾸리는 분들은 이때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바쁜 시기일 것이다. 주말을 뚝딱 교회에 '바친다'는 생각도 좋을 것이나 토요일(일정은 아직 유동적임)에 성결되고 멋진 삶을 위해 알찬 이런 계획을 세워 함께 어우러지는 대열이 되는 것도 아름다울 것이다.

■ 새가정부 집회는 현재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302호실에서 갖고 있다. ...■

지금 우리 부서에선 ② - 청년부

성경과 찬송을 영어로!

김인수(집사, 청년부 부간)

해외 선교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께서 공생황을 시작하신 시점부터 복음이 세계 여러 곳을 돌아 대략 1870여 년이 지난 후 19세기 초에 한반도에 도달했다. 그로부터 신자가 1200만이 되는 데에 100여 년 밖

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복음 전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다.

청년부에서는 영어공부가 우리 교회 과제 중 하나인 "만민에게 복음 전파"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생각되어 청년부를 주축으로 영어성경공부반을 열게 되었다. 아울러 미래에 선교를 담당하실 분들은 영어로 찬양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겠기에 찬송과 복음성가를 영어로 학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영어성경공부나 찬송학습에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

■ ...청년부는 주일 오후 2시에 갖는 집회 외에 영어성경공부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7시 203호실에서, 영어찬송 및 복음성가 학습을 주일 12시 30분 - 1시 10분까지 204호실에서 하고 있다. ...■

세움을 입고서

감사 · 감사 · 감사

김용훈(사랑부 학생회장)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를 아끼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저를 사랑부 회장으로 큰 직분을 맡겨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생회장으로서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고 충실한 주님의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제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훨씬 정성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지금껏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사랑부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학생회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의 글은 신임 회장의 소감이다. "예수님이 좋아서 믿게 됐다"는 단순한 몇 마디에 말을 하기에 숨이 차오르는 중증 뇌성마비의 김군은 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 경기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운동선수이기도 하다. ...■

등정

* 이종운 목사는 3·1절 80주년을 기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비전126기도모임 섬김위원 국제대회 인도차 3월 1일 출국(미국 워싱턴D.C.) 하여 3월 6일(토) 귀국한다. 김상철 장로를 비롯한 33명의 한국 목사 및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

* 찬양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월요조찬기도회 모임을 갖고 찬양위원들의 영성과 찬양대 부흥발전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다.

* 최학인 장로 · 최소희 집사(4교구)는 수원시 장안구 삼익아파트로 이사했다. (☎ 0331 - 256 - 0225)

* 이영조 · 이영자 집사(1교구)는 문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사했다. (☎ 3401 - 8511)

* 최정환 성도 · 윤금자 집사(1교구)는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로 이사했다. (☎ 517 - 7117)

* 고범란 집사 · 최사규 성도(1교구)는 논현동으로 이사했다. (☎ 546 - 5310)

* 유후자 권사(5교구)는 안양시 동안구 임곡아파트로 이사했다. (☎ 0343 - 384 - 4323)

* 이번 주 점심식사는 이계홍 · 성순자 집사가 정에서 제공했다.

* 루디아 제 2전도회는 2일(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초청된 새가족 *

석대성 이영원 김대생 오달수 김기섭
김성실 최경숙 정영옥 고범석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2. 삼일운동 80주년을 맞으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3.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가 결실할 수 있도록
4. 전도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